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윤미혜 신희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배우자와 관련되지 않은 일상의 사건들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 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aurenceau 등(1998; 2005)의 친밀감과정모델을 확장하여 연구모델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218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부츠트랩방법과 다집단 비교분석이 사용되었다. 매개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부츠트랩 분석 결과, 지각된 배우자 반응은 친밀감에 미치는 자기개방효과 및 배우자개방효과를 매개하였다. 남녀 성별에 대한 매개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다집단 분석 결과, 긍정적 사건 공유는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입증되었으나 부정적 사건 공유는 남녀에 따라 모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은 부정적 사건 공유에서 자기개방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반면, 여성은 부정적 사건 공유에서 배우자개방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논하였다.

주요어 : 사건공유, 자기개방, 지각된 반응, 친밀감, 부부관계, 부츠트랩 분석, 다집단 분석

결혼한 부부들 중 어떤 부부들이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며 사는가? Gottman과 Silver(2002)가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을 관찰하고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예방하고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핵심요인은 부부사이에 부정적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더 많은 ‘긍정적 감정’이라고 한다. 부부관계의 정서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들(Greenberg & Johnson, 1986; Magolin & Weinstein, 1983)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긍정적 정서 중 하나로 부부간의 친밀감을 꼽는다. 부부간 친밀감이 중요한 이유는 친밀감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사

회·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적 장애가 유발되며(이경희, 1995; Patton & Waring, 1984), 부부간에 경험하는 친밀감의 정도는 아내나 남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Antonucci, 1990).

친밀감 과정 모델

지금까지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서로 친밀감을 느끼며 이러한 긍정적 정서 경험이 전반적인 결혼만족과 어떤 관련이

* 동 연구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신희천,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1) 219-2747,

E-mail : hshin@ajou.ac.kr

있는지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근래에 Reis와 Shaver(1988)는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을 이론화하였는데, 친밀감을 대인관계 과정의 산물로 바라보는 이 모델은 연인이나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친밀감이 발달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모델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자기개방(self-disclosure), 파트너반응(partner responsiveness), 그리고 지각된 파트너 반응(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이다. 친밀감의 발달과정은 화자(speaker)가 청자(listener)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된 정보, 생각, 감정을 개방(즉, 자기개방)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청자는 화자의 개방에 대해 정보를 묻고, 감정을 표현하고, 다양한 행동을 표출함으로써 화자에게 반응(즉, 파트너개방)한다. 친밀감 발달과정에서 자기개방과 이에 수반되는 파트너개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역할은 상호적이고 유동적이다. 이 과정에서 개방자가 파트너의 반응을 친밀감으로 느끼려면 파트너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화자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화자가 형성한 파트너 반응에 대한 지각을 '지각된 파트너 반응(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이라 한다.

Reis와 Shaver(1988)는 만약 개방자가 파트너의 반응을 이해, 수용과 인정, 돌봄으로 지각한다면 상호작용을 친밀감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이는 개방자의 자기개방이나 수신자의 실제적인 반응보다 수신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개방자의 해석이 친밀감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생활과 낙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긍정적일수록, 관계 역시 더욱 만족스럽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혀온 바 있다(Fincham & Bradbury, 1990). Yalom과 Leszcz(2005)에 따르면 자기개방이란 항상 대인관계적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맥락 속에서 자기를 개방한다는 점이다. 개방자가 자신을 털어 놓아 마음의 짐을 벗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방으로 말미암아 타인

과 더 깊고, 풍부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정이나 데이트 관계보다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이 타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의 최고지점에 올려두기 때문에(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 Reis, Clark, & Holmes, 2004), 부부관계에서 개방과 배우자 반응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다른 어떤 대인관계보다 결혼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간의 친밀감 형성에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의 개념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두 편의 연구(Laurenceau, Barrett, & Paula, 1998; 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에서 Reis와 Shaver(1988)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친밀감 과정 모델을 검증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를 대상으로 한 Laurenceau, Barrett과 Rovine(2005)²⁾의 연구는 배우자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건을 배우자와 공유하는 것은 개방자의 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지각된 배우자 반응은 자기개방과 배우자개방이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남편이나 아내가 개인적인 사건을 배우자에게 털어 놓는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자에게 이해받고 인정받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는 긍정적 경험은 자기개방과 배우자개방이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친밀감을 예측해주며, 이때 개방자가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배우자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친밀감형성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 모델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Reis와 Shaver(1988)는 자기개방에 대해 실제로 상대가 반응적이었다 하더라도, 화자는 상대의 행동을 반응적으로 지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즉, 화자의 개방이나 청자의 실제적 반응보다 화자의 지각과 해석이 친밀감 발달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의 발달은 개방자가 그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자기개방과 배우자개방의 역할에만 초점을 두는 것

1) Reis와 Shaver(1988)는 친밀감 대인관계과정 모델을 소개하면서 '파트너 반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Laurenceau 등(1998; 2005)은 이를 '파트너개방'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파트너 반응과 파트너 개방으로 각기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Laurenceau 등(2005)의 연구에서는 그들의 이전 연구(1998)와 달리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들의 연구 결과를 기술할 때에는 '파트너'를 '배우자'로 바꾸었다.

은 친밀감이 발달하는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인 사건 공유를 통한 부부간의 친밀감 발달 과정에 있어서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역할에 초점을 둔 Laurenceau 등(2005)의 친밀감 과정 모델(Process Model of Intimacy)을 반복 검증하고자 한다.

사건 개방의 두 맥락 :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

Laurenceau 등(2005)에 따르면 배우자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개방할수록 부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개방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적 친밀함은 개인적 욕구 충족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Prager & Buhrmester, 1998). 그러나 화자가 개방하는 사건은 긍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긴 일을 개방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얻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먼저, 부부기간에 개인적으로 기쁜 일을 나누면 그 기쁨이 정말 배가 될까? Prager와 Buhrmester(1998)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사건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경험이 개방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가치감, 자기고양감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이는 관계의 친밀감과 안녕감을 제고해준다고 한다. 또한 Langston(1994)은 타인들과 기쁜 소식을 공유하거나 그 사건을 축하하는 과정을 capitalization(긍정 경험의 확대재생산)이라고 명명하고, 긍정적 사건을 공유한 사람들은 사건 자체를 넘어서 더 큰 긍정 정서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최근 두 편의 연구들(Gable, Reis, Impett, & Asher, 2004; Gable, Gonzaga, & Strachman, 2006)은 긍정적 사건을 공유한 커플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긍정 정서와 일상생활의 만족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긍정적 사건이 부정적 사건보다 5 : 1 정도로 더 자주 발생한다(Gable & Nezelk, 1998). 그럼에도 자신의 일이 잘 되어갈 때 함께 나눌 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부부 관계의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capitalization(긍정 정서의 확대 재생산)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한편, 긍정적 사건의 공유와는 달리 부정적 사건의 공유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부정적 사건과 배우자 지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주로 사

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부부처럼 강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배우자가 옆에서 자신을 지지해줄기를 기대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인 혹은 배우자에게 받은 지지가 개방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관계의 친밀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Collins & Feeney, 2000, 2004; Cutrona, 1986; Gable et al., 2004)이 있다. Laurenceau 등(2005)의 친밀감 과정 모델을 부정적 사건 개방에 적용해 보면, 남편이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개방할 경우(예 : '오늘 회사에서 팀장이 면박을 주었어요'), 아내로 하여금 보살핌과 지지받음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으며(예 :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창피 했겠네요/팀장이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이때 화자는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 인정, 수용, 돌봄으로 지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부정적 사건 개방이 가지는 위험요소에 대해 지적하는 연구들(Fisher, Nadeler, & Whitcher-Alagna, 1982; Bolger, Zuckerman, & Kessler, 2000; Murray, Holmes, & Griffin, 2000)도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자신의 고통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근심을 촉진시켜, 자신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다는 신호로 작용하여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Bolger, Zuckerman과 Kessler(2000)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지지는 고통 받는 사람이 지지받음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지지(invisible support)'라고 한다. 아마도 부부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나 도움이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친밀감 형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개방하는 사건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Laurenceau 등(1998; 2005)의 연구를 확장하여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의 개방 각각이 기혼남녀의 친밀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특히 부부간에 부정적 사건의 개방이 친밀감 형성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아내와 남편 각각으로 나누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성차와 관련하여 Jullian과 Markman(1991)은 남편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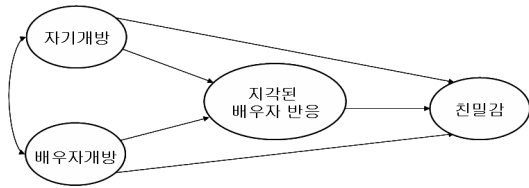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매개모형

비하여 아내들이 관계, 특히 결혼관계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더 민감하다고 한다. Laurenceau 등(2005)도 부부 친밀감 대인관계 과정의 매개경로에서 성차를 보고했는데, 자기개방의 매개경로는 아내와 남편에게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개방의 매개경로는 남편보다 아내가 *marginal*($p < .06$)하게 더 큰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감 발달과정에서 배우자개방과 지각된 배우자 반응은 남편에 비해 아내에게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Gable 등(200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긍정적 사건의 토론에 대한 지각된 반응이 현재의 관계만족과 관련이 있었고, 여성은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 토론 모두에 대한 지각된 반응이 관계만족과 관련이 있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Laurenceau 등(2005)의 연구를 반복·확장하여 검증하는데 있다. 첫째, Laurenceau 등(2005)의 연구에서처럼 자기개방 및 배우자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배우자 반응이 매개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이 부분은 선행연구의 반복연구가 될 것이다. 이론적 매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개방의 유형을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것이다. 이는 Laurenceau 등(2005)의 연구를 사건 공유의 맥락에 따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부부친밀감 발달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차이가 있는지 성차를 검토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참가자는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 남성 107명, 기혼 여성 111명으로 비확률표집에 해당되는 눈

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의 가족, 친구, 동료, 특정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 그들의 주변 인물들로 확대해 나갔다.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경기였으며, 일부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포함되었다. 총 441개의 설문지를 배포, 283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1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범위는 20대에서 60대였으며, 평균연령은 남녀 각각 38.57세/38.60세였고, 연령대는 30대(51%)가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남녀 각각 9.6년/11.9년이었다. 일상 사건을 공유하는 비율은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이 3 : 2로 배우자와 긍정적 사건을 조금 더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사건 공유 질문지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모델에 근거하여 Laurenceau 등(1998)이 개발한 daily Diary form 즉, RIR (Rochester Interaction Record Items)을 응답자가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사건공유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개방자가 배우자와 공유한 긍정적·부정적 사건을 하나 이상 최대 세 개 까지 회상하고 그 중 가장 긍정적·부정적인 사건을 하나 선택하여 자신이 배우자에게 개방한 감정, 생각, 사실 및 정보를 간략하게 적는다.3) 두 번째 부분은 개방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 사실 및 정보(총 3문항)를 배우자에게 표현한 정도를 1점(전혀 표현 안함) - 5점(매우 많이 표현)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문항 예 : ‘귀하는 배우자에게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세 번째 부분은 사건을 공유하는 동안에 배우자가 그 사건에 대해 표현한 감정, 생각, 사실 및 정보(총 3문항)의 개방 정도를 개방자가 1점(전혀 표현 안함) - 5점(매우 많이 표현)까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정한다(문항 예 : ‘배우자는 귀하에게 감정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3) 사건회상의 순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먼저 긍정적 사건을 회상한 후 부정적 사건을 회상하는 질문지(A형)와 부정적 사건을 회상한 후 긍정적 사건을 회상하는 질문지(B형)로 두 유형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사건 회상 순서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

Reis(2003)의 지각된 파트너 반응 척도(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Scale)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 척도로써, 친밀한 파트너와 상호작용을 할 때 얼마나 이해받고, 인정과 수용을 받으며, 돌봄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1점(전혀 아니다) -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한 사건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반응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측정하도록 했다(문항 예 : '내 배우자는 나에게 호감이나 격려를 표현해 주었다'). 본 연구는 Gable 등(2006)이 사용한 수정버전 10문항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로 명명하고 척도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척도의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박지원, 1985)척도를 현재 이성 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 71명(남 12명, 여 59명)에게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그 후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내적합치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가 Reis의 원 척도와 마찬가지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 10 문항은 두 사건 개방 모두에서 Reis 등의 원 척도와 동일한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박지원, 1985)와 공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결과를 보면, 두 사건 개방 후에 측정된 지각된 배우자 반응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 간 상관은 긍정적/부정적 사건 각각 정서적 지지는 0.79/0.76, 평가적 지지는 0.78/0.67, 도구적 지지는 0.39/0.57로 나타나 두 척도 간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척도가 매우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가 도구적 지지보다 정서적·평가적 지지와 일관되게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가 이해, 인정, 수용, 돌봄을 평가하는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Gable 등(2006)의 연구에서 긍정/부정 사건 공유 후에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남녀 각각 .94, .95/.94, .89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긍정/부정 사건 각각 .93/.94이었다.

친밀감 척도

Acker와 Davis(1992)가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the Triangle Theory of Love Scale)에 근거해 만든 것을 강진경과 최혜경(1996)이 번안 및 수정하고, 이를 박의순(1997)이 재구성한 25문항 중 친밀감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친밀감요인은 부부관계의 따뜻함, 편안함, 서로에 대한 중요성, 신뢰, 정서적 지지, 도움, 행복을 내용으로 하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박의순(1997)의 연구에서 친밀감요인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6이었다.

분석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과 AMOS 7.0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통계 분석 및 측정모형의 검증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한 부츠트랩(Bootstrap) 분석으로 친밀감 과정 모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부츠트랩 검증은 Shrout와 Bolger(2002)의 분석절차에 따랐다. 부츠트랩 분석은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부츠트랩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홍세희, 2007). 때문에 매개경로의 유의미성을 Sobel 검증보다 더욱 민감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hrout & Bolger, 2002). 세 번째 단계는 친밀감 과정 모델이 남성과 여성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에 근거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초통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사건 유형에 따라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t*검증 결과 주요 변인들 간에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 남자(N=107) 여자(N=111) | | 전 체 |
|-----------------|---------------------|--------------|------|
| |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
| 긍정적 사건개방 | | | |
| 자기 개방 | 3.65 (0.92) | 3.81 (0.87) | 3.73 |
| 배우자 개방 | 3.59 (0.96) | 3.47 (0.98) | 3.52 |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3.73 (0.91) | 3.80 (0.84) | 3.76 |
| 친밀감 | 4.13 (0.75) | 4.02 (0.73) | 4.07 |
| 부정적 사건개방 | | | |
| 자기 개방 | 3.48 (0.96) | 3.73 (0.90) | 3.60 |
| 배우자 개방 | 3.48 (0.95) | 3.16 (0.98) | 3.26 |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3.29 (0.94) | 3.21 (1.02) | 3.25 |
| 친밀감 | 3.75 (0.78) | 3.71 (0.84) | 3.73 |

변인들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하였다. 지각된 배우자 반응 척도와 친밀감 척도는 Item parcelling 방법(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으로 나누어 반응1, 반응2, 반응3과 친밀1, 친밀2, 친밀3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에서 나타난 요인들의 값은 각각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긍정적 사건개방의 모형 적합도는 $\chi^2(94)=197.664$, RMSEA=0.071, TLI=0.968, CFI=0.975로 양호하였고, 부정적 사건개방의 모형 적합도는 $\chi^2(94)=105.779$, RMSEA=0.024, TLI=0.996, CFI=0.997로 매우 우수하였다.

매개모형의 검증

Laurenceau 등(2005)의 친밀감 과정 모델 반복검증

지각된 배우자 반응이 자기개방, 배우자개방과 친밀감을 매개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chi^2(48)=82.177$, RMSEA=0.057, TLI=0.987, CFI=0.991로 양호하였다. 연구모형의

표 2. 연구모형 검증에 이용한 관찰변인들의 상관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1 a자기개방 정보 | 1 | | | | | | | | | | | | | | | |
| 2 a자기개방 감정 | .773** | 1 | | | | | | | | | | | | | | |
| 3 a자기개방 생각 | .750** | .811** | 1 | | | | | | | | | | | | | |
| 4 a배우자개방 정보 | .577** | .586** | .532** | 1 | | | | | | | | | | | | |
| 5 a배우자개방 감정 | .540** | .624** | .542** | .758** | 1 | | | | | | | | | | | |
| 6 a배우자개방 생각 | .551** | .619** | .580** | .804** | .871** | 1 | | | | | | | | | | |
| 7 a지각된 배우자 반응 | .547** | .561** | .508** | .639** | .660** | .665** | 1 | | | | | | | | | |
| 8 a친밀감 | .450** | .460** | .345** | .511** | .528** | .530** | .730** | 1 | | | | | | | | |
| 9 b자기개방 정보 | .332** | .293** | .324** | .252** | .185** | .183** | .217** | 0.122 | 1 | | | | | | | |
| 10 b자기개방 감정 | .254** | .285** | .293** | .172* | .214** | .187** | .203** | .149* | .656** | 1 | | | | | | |
| 11 b자기개방 생각 | .262** | .295** | .325** | .252** | .246** | .230** | .186** | 0.100 | .731** | .778** | 1 | | | | | |
| 12 b배우자개방 정보 | .397** | .460** | .371** | .441** | .484** | .432** | .351** | .318** | .505** | .456** | .478** | 1 | | | | |
| 13 b배우자개방 감정 | .273** | .330** | .225** | .314** | .338** | .304** | .238** | .228** | .440** | .372** | .456** | .742** | 1 | | | |
| 14 b배우자개방 생각 | .328** | .433** | .345** | .388** | .427** | .418** | .367** | .316** | .482** | .436** | .518** | .760** | .796** | 1 | | |
| 15 b지각된 배우자 반응 | .313** | .310** | .331** | .289** | .339** | .336** | .443** | .421** | .330** | .404** | .409** | .431** | .454** | .478** | 1 | |
| 16 b친밀감 | .387** | .327** | .292** | .348** | .351** | .363** | .498** | .614** | .283** | .333** | .295** | .434** | .434** | .456** | .778** | 1 |
| 평균 | 3.82 | 3.67 | 3.71 | 3.49 | 3.55 | 3.54 | 3.76 | 4.07 | 3.66 | 3.53 | 3.62 | 3.19 | 3.23 | 3.35 | 3.25 | 3.73 |
| 표준편차 | 0.94 | 0.99 | 0.97 | 1.05 | 1.06 | 1.02 | 0.88 | 0.74 | 1.01 | 1.08 | 1.03 | 1.06 | 1.07 | 1.05 | 0.98 | 0.80 |

주. 변인 명 앞에 a표가 있는 것은 긍정적 사건, b표가 있는 것은 부정적 사건의 자료임. * $p<.05$, ** $p<.01$

표 3. 긍정적 사건개방과 부정적 사건개방의 측정모형 요인 값

| 척도 | 하위요인 | 비표준화 요인값 | 표준오차 | Z | 표준화된 요인값 |
|------------|-------|--------------|------------|----------------|------------------|
| 자기개방 | 정보 | .872(.849) | .049(.057) | 16.468(14.776) | .846***(.795***) |
| | 감정 | 1.147(.952) | .065(.059) | 17.567(16.011) | .920***(.837***) |
| | 생각 | .932(1.050) | .050(.066) | 18.910(16.011) | .879***(.922***) |
| 배우자개방 | 정보 | .921(.934) | .050(.055) | 29.759(16.877) | .847***(.844***) |
| | 감정 | 1.086(.975) | .059(.055) | 18.316(17.846) | .913***(.872***) |
| | 생각 | 1.007(1.026) | .042(.057) | 19.425(17.850) | .948***(.909***) |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반응 1 | 1.008(.949) | .032(.027) | 35.562(35.279) | .977***(.957***) |
| | 반응 2 | 1.055(1.031) | .037(.029) | 35.562(36.110) | .950***(.967***) |
| | 반응 3 | .948(.970) | .033(.027) | 28.390(36.090) | .932***(.960***) |
| 친밀감 | 친밀감 1 | .956(.978) | .027(.020) | 25.429(48.744) | .951***(.974***) |
| | 친밀감 2 | 1.056(.954) | .038(.020) | 35.429(47.418) | .907***(.971***) |
| | 친밀감 3 | .905(1.048) | .035(.022) | 27.797(47.418) | .977***(.984***) |

주. ()안에 든 값이 부정적 사건개방의 측정 모형 요인 값임. *** $p < .001$

구조경로를 보면, 자기개방이 지각된 배우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beta=.22, p<.01$)과 배우자개방이 지각된 배우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beta=.52, p<.001$)은 유의미하며, 지각된 배우자 반응은 친밀감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beta=.74, p<.001$)이었다. 그러나 친밀감에 대한 자기개방의 직접 효과($\beta=-.09, p=.173$)와 배우자개방의 직접 효과($\beta=.14, p=.064$)는 유의미하지 않아 자기개방과 배우자개방은 친밀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미 검증을 위해 부츠트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 경로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츠트랩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결과, 자기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자기개방 매개효과($0.164, p=.017$)는 95% 신뢰구간에 BC(0.045, 0.298)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배우자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배우자개방매개효과($0.321, p=.001$)도 95% 신뢰구간에 BC(0.216, 0.451)가 0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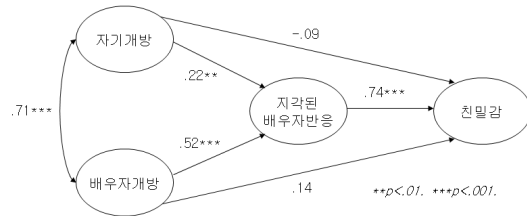


그림 2. 친밀감 과정 모형

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에 있어서 지각된 배우자 반응이 사건개방과 친밀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간 친밀감 발달 과정은 Laurenceau 등(2005)의 선행연구에서 부분매개모형으로 밝혀진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 모형으로 나타났다.⁴⁾

긍정적·부정적 사건 개방에 따른 친밀감 과정 모델 검증

사건개방의 맥락에 다른 친밀감 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개방한 사건의 유형을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의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는 긍정적 사건개방($\chi^2(48)=101.540, RMSEA=0.072, TLI=0.976, CFI=0.983$)과 부정적 사건개방($\chi^2(48)=59.459, RMSEA=0.033, TLI=0.995, CFI=0.996$) 모두

4) Laurenceau 등(2005)은 개방하는 사건의 유형을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지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Laurenceau 등(2005)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상황에서 비교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긍정 대 부정 사건의 공유 비율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긍정 대 부정 사건의 공유의 비율이 3 : 2로 조사됨에 따라 각각의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 뒤,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이 경우에도 완전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친밀감 과정 모델의 매개효과 검증

| Effect | Path | Bootstrap estimate | | 95% Confidence interval | |
|----------|--------------------------|--------------------|-------|-------------------------|-------------------------------|
| | | B | SE | Bootstrap Percentile | Bootstrap with Bias-Corrected |
| direct | 자기 개방 → 친밀감 | -0.096 | 0.073 | (-0.254, 0.039) | (-0.229, 0.294) |
| | 배우자개방 → 친밀감 | 0.116 | 0.065 | (-0.006, 0.244) | (-0.010, 0.596) |
| | 자기 개방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0.261 | 0.101 | (0.068, 0.453) | (0.071, 0.465) |
| | 배우자개방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0.513 | 0.086 | (0.342, 0.690) | (0.341, 0.680) |
|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친밀감 | 0.627 | 0.052 | (0.527, 0.725) | (0.526, 0.723) |
| indirect | 자기 개방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친밀감 | 0.164 | 0.066 | (0.040, 0.293) | (0.045, 0.298) |
| | 배우자개방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친밀감 | 0.321 | 0.060 | (0.216, 0.449) | (0.216, 0.451) |
| total | 자기 개방 → 친밀감' | 0.068 | 0.101 | (-0.142, 0.258) | (-0.126, 0.272) |
| | 배우자개방 → 친밀감' | 0.437 | 0.086 | (0.290, 0.617) | (-0.289, 0.615) |
| | 자기 개방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0.261 | 0.101 | (0.068, 0.453) | (0.071, 0.465) |
| | 배우자개방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0.513 | 0.086 | (0.342, 0.690) | (0.341, 0.680) |
| | 지각된 배우자 반응 → 친밀감' | 0.627 | 0.052 | (0.527, 0.725) | (0.526, 0.723) |

주. N=218. Bootstrap samples은 1,000번, Bootstrap Estimates는 unstandardized된 자료임(Shrout & Bolger, 2002)

에서 우수하였다. 모형의 구조경로를 살펴보면, 긍정적 사건개방에서 자기개방→친밀감 경로의 자기개방 직접효과 ($\beta=-.01, p=.94$)와 배우자개방→친밀감 경로의 배우자개방 직접효과($\beta=.08, p=.39$)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부정적 사건개방에서 자기개방→친밀감 경로의 자기개방 직접효과($\beta=-.08, p=.23$)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배우자개방→친밀감 경로의 배우자개방 직접효과($\beta=.18, p<.05$)는 유의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사건개방의 경우에 자기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자기개방 매개효과(0.132, $p=.014$)는 95% 신뢰구간에 BC(0.028, 0.258)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고, 배우자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배우자개방 매개효과(0.324, $p=.001$)는 95% 신뢰구간에 BC(0.206, 0.489)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부정적 사건개방의 경우에는 자기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자기개방 매개효과(0.135, $p=.051$)는 95% 신뢰구간에 BC(-0.001, 0.275)가 0을 포함하여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배우자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배우자개방 매개효과(0.215, $p=.003$)는 95% 신뢰구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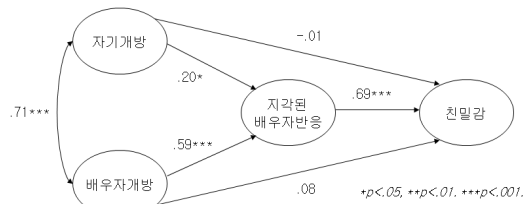


그림 3. 긍정적 사건개방의 친밀감 과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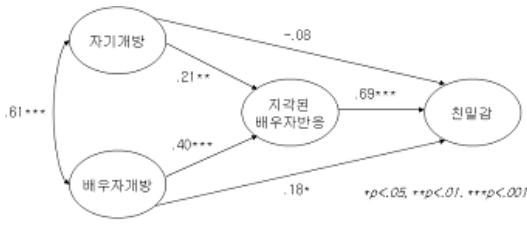


그림 4. 부정적 사건개방의 친밀감 과정 모형

BC(0.1295, 0.321)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긍정적 사건개방의 경우는 지각된 배우자 반응이 자기개방 및 배우자개방과 친밀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부정적 사건개방에서는 지각된 배우자 반응이 자기개방과 친밀감을 매개하지 않으며 배우자개방

표 5. 긍정적 사건개방의 매개모형 형태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 | 모형 | χ^2 | df | TLI | CFI | RMSEA |
|---------------|------------|----------|----|-------|-------|-------|
| 남성 (N=107) | 연구모형(부분매개) | 87.474 | 48 | 0.967 | 0.976 | 0.088 |
| | 경쟁모형(완전매개) | 88.086 | 50 | 0.969 | 0.977 | 0.085 |
| 여성 (N=111) | 연구모형(부분매개) | 83.784 | 48 | 0.967 | 0.976 | 0.082 |
| | 경쟁모형(완전매개) | 83.879 | 50 | 0.970 | 0.977 | 0.078 |

표 6. 부정적 사건개방의 매개모형 형태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 | 모형 | χ^2 | df | TLI | CFI | RMSEA |
|---------------|------------|----------|----|-------|-------|-------|
| 남성 (N=107) | 연구모형(부분매개) | 91.460 | 48 | 0.958 | 0.969 | 0.092 |
| | 경쟁모형(완전매개) | 96.501 | 50 | 0.957 | 0.996 | 0.084 |
| 여성 (N=111) | 연구모형(부분매개) | 38.269 | 48 | 1.009 | 1.000 | 0.000 |
| | 경쟁모형(완전매개) | 41.817 | 50 | 1.007 | 1.000 | 0.000 |

과 친밀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집단 분석

친밀감 발달과정이 남녀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구조 동일성(structure invariance) 가정을 차례로 확인하며 이전의 가정이 통계적으로 입증될 경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분석단계를 거친다.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 동일성은 여러 경쟁모형이 있을 때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집단이 모형의 형태가 동일한지 비교평가 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⁵⁾ 연구모형은 Laurenceau 등 (2005)의 선행연구에서 지지된 부분매개모형으로, 경쟁모형은 자기개방→친밀감과 배우자개방→친밀감의 두 직접

경로를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표 6에 제시된 긍정적 사건개방의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비교 결과를 보면, 남성 집단의 χ^2 차이 값은 0.612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736$). 여성 집단은 χ^2 차이 값은 0.095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954$).

따라서 긍정적 사건개방의 경우,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자유도가 큰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이 형태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델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표 7에 제시된 부정적 사건개방의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비교 결과를 보면, 남성 집단의 χ^2 차이 값은 5.041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2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80$). 여성 집단의 χ^2 차이 값은 3.548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2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170$). 따라서 부정적 사건개방도 긍정적 사건개방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형태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이 성립하였으므로 다음 단계의 측정동일성 가정을 확인하였다. 이 단계부터는 남녀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며, 앞서 검증한 형태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델을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비교 평가는 등지관계에 있는 모델(nested relationship)간의 미지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부합도 지수의 상승을 비교하는 χ^2 차이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χ^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1).

표 7. 긍정적 사건개방의 매개모형 측정 및 구조 동일성 적합도 지수

| 성별 | χ^2 | df | TLI | CFI | RMSEA(신뢰구간) |
|--------------|----------|-----|-------|-------|----------------------|
| 기저모델 | 171.966 | 100 | 0.969 | 0.977 | 0.058 (0.043, 0.072) |
| 측정 동일화 제약 모델 | 175.805 | 107 | 0.973 | 0.978 | 0.055 (0.040, 0.069) |
| 구조 동일화 제약 모델 | 178.585 | 111 | 0.974 | 0.978 | 0.053 (0.038, 0.067) |

표 8. 부정적 사건개방의 매개모형 측정 및 구조 동일성 적합도 지수

| 성별 | χ^2 | df | TLI | CFI | RMSEA(신뢰구간) |
|--------------|----------|-----|-------|-------|----------------------|
| 기저모델 | 138.328 | 100 | 0.983 | 0.987 | 0.042 (0.023, 0.058) |
| 측정 동일화 제약 모델 | 144.989 | 107 | 0.984 | 0.987 | 0.041 (0.021, 0.056) |
| 구조 동일화 제약 모델 | 156.165 | 111 | 0.982 | 0.985 | 0.043 (0.026, 0.059) |

기저 모델로 설정하여 검증한다.⁶⁾ 긍정적 사건 개방과 부정적 사건개방의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사건개방의 측정동일화 제약 모델과 기저모델 간의 χ^2 차이 값은 3.839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p=0.529$), 부정적 사건개방의 측정동일화 제약모델과 기저모델 간의 χ^2 차이 값은 6.161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21$). 이에 따라 긍정적 사건개방 및 부정적 사건개방 매개모형의 남녀에 따른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의 검증은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서로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모형을 분석하는 것으로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상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하면 모형의 적합도는 떨어진다(홍세희, 2001). 표 7에 제시된 긍정적 사건 개방의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를 보면, χ^2 차이 값은 2.779이며, 자유도의 차이는 4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95$). 모델적합도 지수는 측정동일화 모델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긍정적 사건개방은 남녀집단에 있어서 두 매개모형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구조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남녀 두 집단 사이에 혹시 존재할지도 모르는 경로계수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가려내기 위해

긍정적 사건개방의 매개모형에 존재하는 3개의 경로계수 하나하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모형을 비교하였다.⁷⁾ 남녀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 경로 모두 χ^2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았고(0.001에서 1.432), TLI 값에도 변화가 없으므로(0.001) 두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에서 남성과 여성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표 8에 제시된 부정적 사건개방의 구조 동일성 검증 결과를 보면, χ^2 차이 값은 11.176이며, 자유도차이는 4로 유의미하므로($p=0.025$), 부정적 사건개방에서 남녀 집단 간에 구조동일성 가정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남녀 두 집단 간에 어떤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정적 사건개방 매개모형의 3개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고 기저모형과 비교해보니, 배우자 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 경로에서 남녀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χ^2 변화량(6.199, $df=1$)이 유의미하였으며($p=0.013$), 여성($\beta=.59, p=.001$)이 남성($\beta=.16, p=.193$) 보다 경로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정적 사건개방의 경우 다집단 분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모델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매개효과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츠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남성은 자기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자기개방 매개효과(0.243, $p=.031$)가 95% 신뢰구간에 BC(0.019, 0.457)가 0을 포함하지 않아

6) 측정 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 남녀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화 제약 모델과 기저 모델간의 χ^2 차이검증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한다(홍세희, 2001).

7) 남녀 집단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를 가려내는 방법은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고, 배우자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배우자개방 매개효과(0.089, $p=.188$)는 95% 신뢰구간에 BC(-0.048, 0.298)가 0을 포함하여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은 자기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자기개방 매개효과(0.084, $p=.502$)가 95% 신뢰구간에 BC(-0.178, 0.278)가 0을 포함하므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배우자개방→지각된 배우자 반응→친밀감 경로의 배우자개방 매개효과(0.343, $p=.003$)는 95% 신뢰구간에 BC(0.192, 0.550)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사건의 공유가 부부간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성은 자기개방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고, 여성은 배우자개방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에 따라 친밀감 과정 모델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와 관련되지 않은 일상 사건들을 부부가 공유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과 좌절 사건을 배우자에게 개방하고 배우자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험이 부부간의 친밀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aurenceau 등(2005)이 Reis와 Shaver(1988)의 이론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친밀감 과정 모델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자기개방, 배우자개방과 지각된 배우자 반응이라는 구성요소가 부부간의 친밀감 발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 공유의 두 가지 맥락(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Laurenceau 등(2005)의 선행연구를 반복 검증한 결과, 지각된 배우자 반응은 친밀감에 대한 자기개방 및 배우자 개방을 매개하나 자기개방 및 배우자개방이 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방자의 긍정적 지각과 해석이 부부의 친밀감 발달에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Laurenceau 등(2005)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나, 개방 자체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 한국의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는 상호의존적이며,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의존이 높고, '우리' 의식이 강한 반면, 개인주의 문화는 자기 충족적이며,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정서가 독립적이고, '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이종환, 200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처럼 관계지향적인 문화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반응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친밀감 형성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차이는 '정'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최상진, 1993)과 관련 지어 볼 수도 있다. 한국인 부부들에게는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처럼 자신이나 배우자의 표현적인 개방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다는, 부부가 대화를 나누며 배우자의 반응에 대해 느끼고 해석하며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오고가는 정서적인 교류가 부부친밀감 발달에 더 비중 있는 요소인지도 모른다. 우리처럼 정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표현한 행동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mind)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외적 행동은 내적 심리(마음의 표출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 뒷면에 있는 의도나 심정을 읽는데 매우 민감하며, 추론한 속마음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가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상진, 1993).

둘째, 남편이나 아내가 개방하는 사건의 유형을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으로 구분하고 부부간 친밀감 발달 과정을 확인하였다. 부부간 친밀감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 사건개방에서 자기개방 및 배우자개방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전통적으로 배우자의 지지와 그에 대한 개방자의 지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 상황과 같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이 잘 되어 갈 때처럼 긍정 정서의 확대재생산(capitalization) 맥락에서도 배우자의 반응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부부의 친밀감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Fredrickson(2001)이 긍정정서의 확장-형성 모델에서 제안한 상향식 정서적 웰빙(upward spirals toward improved emotional well-being)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험은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 시키고, 배우자의 지지적인 피드백을 이끌어 내며, 이는 더욱 더 긍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이어져 친밀한 관계를 한층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간에 개인적인 일상사건의 개방 자체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긍정적 사건개방에 따른 친밀감 과정모델의 경우, 자기개방 및 배우자개방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자신의 기쁜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사건 공유 시에 배우자가 반응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친밀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부정적 사건개방에 따른 친밀감 과정 모델에서는 자기개방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배우자개방의 직접효과만 유의미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생긴 나쁜 일을 배우자에게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생긴 나쁜 일에 대해서 배우자가 개방을 많이 할수록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실패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친밀감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예컨대, Bolger et al., 2000)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들(Fisher, Nadeler, & Whitcher-Alagna, 1982; Murray, Holmes, Podchaski, Bellavia, & Graffin, 2005)에 따르면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의 개방은 자기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관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자기개방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의 친밀감 발달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인된 변인들의 측정모형이나 구조모형이 남녀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긍정적 사건개방의 친밀감 과정 모델은 남녀 집단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의미가 없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긍정적 사건을 배우자와 공유할 때 자신의 심리적 친밀감이 발달하는 과정이 남녀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사건개방의 경우 남녀 집단 간에 구조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 친밀감 발달과정의 구조경로가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다집단 분석을 통해 부정적 사건 개방의 친밀감 형성 과정이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매개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살펴보니, 남성은 자신의 실패나 좌절 사건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눈에 띄는 지지보다는 스스로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친밀감이 높아졌다. 이에 비해 여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나쁜 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개방 혹은

지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성차는 남성이 더 독립적이며 성취 지향적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적이며 상호의존적 욕구가 더 크다고 보는 기존 연구들(한소영, 신희천, 2007; Helgeson, 1994; Kashima et al, 1995; Prager & Buhrmester, 1998)과 유사한 결과이다. 성취지향인 남성의 경우 강점이 지지받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 되지만, 자신의 행복하지 않은 면을 개방할 때, 파트너의 눈에 띄는 지지는 남성의 기능적 욕구충족(예; 자기효능감, 자기보호감)을 방해할 수 있다(Prager & Buhrmester, 1998). 여성에게서 나타난 배우자 의존적인 현상은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특성과 욕구가 드러난 결과로, 여성의 경우 개인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청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친밀감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반복 검증을 위해 지각된 배우자 반응이 개방과 친밀감을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했으나 다른 대안적인 연구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배우자 반응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에 따라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증가된 자기개방은 배우자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하여 다시금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호적인 모형이 실제로 더 부합하는 설명모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영향 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모형(예를 들어, 자기회귀 교차 지연 모형; 홍세희, 유숙경, 2004)을 검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부가 사건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측정은 질문지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방법은 부부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즉시적인 상호작용을 민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일지법(daily diary)이나 경험표집법(ESM) 등의 방법을 사용해 부부가 매일의 상호작용 후에 즉시 경험하는 생생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혼 남녀 각각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부부 쌍 자료(dyad data)를 이용한 분석을 한다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녀의 차이를 조절변인으로 고려한 다층모형(HLM) 분석을 적용하여 친밀감 형성의 종단적인 과정을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친밀감발달에 중요 요소로 배우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해석하는 힘에 초점을 두었으나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특성, 도식, 자존감 등의 개인차 변인을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부부의 친밀감 형성과정의 개인차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성차와 관련한 다집단 분석에서 남녀 샘플의 수가 충분치 않으므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배우자와 공유하는 경험이야말로 부부가 함께 친밀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사건 맥락과 성별에 따라 기혼남녀의 친밀감 발달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생한 사건의 유형이나 남녀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 부부문제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배우자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자신의 능력이 부부관계에 핵심임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수용’이 부부관계에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마음챙김(mindfulness)을 촉진시키는 수용중심치료가 커플치료에 도입되고 있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Jacobson, Christensen, Prince, Cordova, & Eldridge, 2000).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부가 일상의 삶속에서 긍정적 상호교환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부부 문제로 고통 받는 부부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배우자가 변화하기를 고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친밀한 결혼생활로 가는 열쇠임을 시사해 준다.

참 고 문 헌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한국교육

- 심리학회지 :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박의순 (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 부부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의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이종환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3), 특집호, 201-219.
- 최상진 (1993). 한국인의 심정 심리학 :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움, 1993(3), 3-21.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균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243-264.
- 홍세희 (2001). 구조 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2), 243-264.
- 홍세희, 유숙경 (2004).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8(1), 381-392.
- Antonucci, T. C. (1990). Social support and social relationships. In Binstock, R. H., & Geroge, L. K. (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205-226), NY : Academic Press.
- Bolger, N., Zuckerman, A., & Kessler, R. C. (2000). Invisible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79(6), 953-961.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1073.
- Cutrona, C. E. (1986). Behavioral manifestations of social

- support : A micro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51, 201-208.
- Feeney, B. C. (2004). A secure base : Responsive support of goal strivings and exploration in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27-54.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90). Social support in marriage : Role of social cognition. *Journal of Social Clinical Psychology*, 9, 31-42.
- Fisher, J. D., Nadeler, A., & Whitcher-Alagna, S. (1982). Recipient reactions to aid. *Psychological Bulletin*, 91(1), 27-54.
- Fredrickson, B. L. (2001).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Gable, S. L., Gonzaga, G. C., & Strachmanr, A. (2006). Will you be there for me when things go right? Supportive responses to positive event 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904-917.
- Gable, S. L., & Nezelek, J. B. (1998). Level and instability of day to da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isk fo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9-138.
- Gable, S. L., Reis, H. T., Impett, E. A., & Asher, E. R. (2004). What do you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228-245.
- Gottman, J. M., & Silver, N., 임주현 역(2002). *The 7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서울 : 문학사상사.
- Greenberg, L., & Johnson, S. (1986). Affect in marit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Therapy*, 12, 1-10.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 New York : Norton.
- Jacobson, N. S., Christensen, A., Prince, S. E., Cordova, J., & Eldridge, K. (2000).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 An acceptance based, promising new treatment for couple discord.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351-355.
- Johnson, S. M., & Greenberg, L. S. (1986) Psychotherapy :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4 (3S), Fal 1987. *Special issue : Psychotherapy with families*, 552-560.
- Jullian, D., & Markman, H. J., (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549-568.
- Langston, C. A. (1994). Capitalizing on and coping with daily-life events : Expressive reponses to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67(6), 1112-1125.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Paula R. P. (199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model : The importanc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ure, and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14-323.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Rovine, M. J. (2005).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in marriage : A daily diary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14-323.
- Magolin, G., & Weinstein, C. (1983). The role of affect in behavioral therapy. In L. R. Wolberg & M. C. Aronson(Eds.), *Group and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 Murray, S. L., Holmes, J. G., & Graffin, D. W. (2000). Self-esteem and the quest for felt security : How perceived regard regulates attach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78-498.
- Murray, S. L., Holmes, J. G., Podchaski, E. J., Bellavia, G., & Graffin, D. W. (2005). Putting the partner within reach : A Dyadic perspective on felt security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327-347.

- Patton, D., & Waring, E. M. (1984).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0*(3), 201-206.
- Prager, K. J., & Buhrmester, D. (1998). Intimacy and need fulfillment in couple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5*(4), 462-467.
- Reis, H. T. (2003). *A self-report measure of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Rochester.
- Reis, H. T., Clark, M. S., & Holmes, J. G. (2004).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as an organizing construct in the study of intimacy and closeness. In D. J. Mashek & A. P. Aron(Eds.), *Handbook of closeness and intimacy, 201-225*. Mahwah, NJ : Erlbaum.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 Duck & D. F. Hay(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367-389*. New York : Wiley.
-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119-135*.
- Yalom, I. D.,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5th ed.), 134-135. New York : Basic Books.

Process Model of Marital Intimacy on Sharing Daily Events :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Meehye Yoon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haring daily events on marital intimacy. Laurenceau et al. (1998; 2005)'s process model of intimacy was selected as a research model.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bootstrap and a multi-group analysis. The Bootstrap analysis demonstrated that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mediate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partner disclosure on intimacy. The multi-group analysis demonstrated that process of marital intimacy differed by gender and the type of the shared experience. While a model for sharing positive events could be applied for both genders, models for sharing negative events varied by gender.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For husbands, sharing negative event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self disclosure, but for wives, sharing negative events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partner disclosure.

Keywords: Positive event; Negative event; Self-disclosure; Intimacy;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Bootstrap; Multi-group analysis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11월 3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1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8일